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그로부터 2년 반.. 우리 건축사들은



전남영암 “강길선” 건축사와의 만남

시론 \_ 02

'100'+1,000'+31'+8,500=17=1' 그리고 '손백' \_ 정명철 광주건축사회회장

기획 \_ 03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2012년 12월 1일) 그로부터 2년 반.. 우리 건축사들은

설계경기 \_ 04 ~ 05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무등산국립공원 생태탐방연수원 신축 설계공모

학술지면 \_ 06

런던, 고전과 모더니가 함께하는 곳 \_ 1부

사람&issue \_ 07

전남 영암지역 최초 개업 건축사 강길선 건축사와의 만남

대학뉴스 \_ 08

조선대 건축학부 4학년 1학기 도시설계프로젝트 평가회 열어  
순천대 건축학부 5학년 1학기 설계 공개 크리틱 진행해  
전북대 건축공학과 농촌마을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나선다

NEWS \_ 09 ~ 11

광주 심상봉 건축사(AD그룹 건축), 미술작품 첫 초대전 개최  
광주건축사회, 2015 광주하계U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서포터즈 지원 나서  
전북건축사회, 오토데스크 골드 파트너 (쥬웨이드아이앤씨와 협약 체결)

부산감천마을  
photo by 박종호

201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행복을 담은 건축학교  
광주지역 교육 개최(7월25일~8월15일)



# '100' + '1,000' + '31' + '8,500=17=1' 그리고 '손뼉'



**정명철** 회장/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제31대 사·도 건축사회회장협의회 총무회장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j12271@nate.com

## '100일'

7월 9일은 광주건축사회장으로 취임한지 정확히 100일이 되는 날이다. 지금까지 보내온 하루하루, 매 시간들은 나에게 설렘을 주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건축사회를 최고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회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가...매 초 매분 매시간마다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과연 내가 100일 동안 우리 회원들을 위해 무엇을 이루었는지... 되뇌어 봤다. 취임 후 제일 먼저 전체 회원들의 고충과 조언을 듣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에 5개 구별 간담회를 3일간 개최했고, '회원알림'이라는 보고 형식을 만들어 회원들이 우리 사회의 주요 업무현황과 건축 관련 법령 소식들을 신속하게 전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시청과 각 구청별 건축 관련 실무과와 간담회를 연달아 개최하였고, 시청 및 5개 구에 건축 및 도시계획 심의위원을 맡고 있는 회원들과 건축심의 관련 개선 및 요청사항을 협의하고자 대관 위원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회원들이 대관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했다.

이러한 추진 사업들과 함께 회장 선거 때 공약했던 하나하나의 사업들을 검토해 보며 개선 방향을 찾아내기도 하고 반성도 해봤다.

그러하여 그런 내용과 의지들이 담긴 서한을 취임 100일에 맞춰 우리 광주 회원 한분 한분들에게 직접 발송까지 했다.

## '1000일'

정성을 다해 서한을 써내려가면서 남은 약 1,000일간의 임기 기간 중, 우리 회원들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중요 사업들이 머릿속에서 그려지며 결연한 의지가 생겼다.

건축규제 개혁을 위한 입법 활동과 함께 자치구청이 참여하는 구별 워크숍 개최, 건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건축사사무소 그룹화 추진, 우리 사회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건축제도 정책연구원 설립 등. 이 다수의 추진 사업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결정되는 것은 건축사들의 생존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축 관련 법령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야겠다는 것이었다.

이 사업이야말로 말로 비단 우리 광주건축사회 만이 추진해야 할 일만은 아닐 터이다.

## '31대'

1993년 1,445명의 사상자 및 실종자가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작년 초에 1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담양 팬션 화재 등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나 건축계에는 큰 변화가 이뤄졌다.

건축 관계 법령의 개정이 이뤄지면서 점점 우리의 업역이 침해되고 축소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무언가 강력한 대응팀이 꾸려져야하는 필요성을 느낀다.

올해 선출된 17개 시·도 건축사회 신임 회장들은 제31대 시·도 건축사회 회장 협의회(회장:서울시건축사회 석정훈 회장)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건축문화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 건축문화 발전 그리고 우리 건축사들의 건축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협의회에서는 지난 달 6월 2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를 방문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위협하고 건축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내용이 담겨져 문제가 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2015-504호)과 관련하여 항의 방문했다.

이 개정안에는 1,000㎡ 이상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 건축사 이외에 건설기술용역업자도 감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상주감리 확대로 국민에게 부담감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했다.

우리 회장단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의견을 피력했지만 결국 떠나 버린 버스에 손 흔드는 격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계류 중인 건축물 분리감리제도 법제화에 대한 추진 방법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상황은 6월 임시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한국건축가협회의 적극적인 반대(지난해 양 회간 합의 결정해 놓고 본 법안이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에 반대 공문을 보냄)를 표명함에 따라 소위원회에서는 관계 단체간 합의해 줄 것을 요구하며 유보시켰다. 2013년 이후 3번째 유보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6월 29일 김상희 국회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및 계약제도 도입, 공사감리비용 예치 제도 신설, 지역건축센터 제도 도입 등 우리 건축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회원들이 인식하고 있는지가 의문이다. 의사 단체나 약사 단체와 같은 전문가 단체들은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안에 대해 뚝뚝 뭉쳐 확고한 의지를 갖고 방향성을 수립하여 법안발의 전에 작업(?)을 들어가는 묘수를 발휘한다.

그러한 묘수가 없는 우리 조직이 조금은 안타까울 뿐이다.

## '8,500=17=1' 그리고 '손뼉'

국가전문자격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의 회원 수는 약 8,500여명에 이른다. 그 아래로 17개 시·도 건축사회가 있고 또 그 아래로 1개의 협회가 존재한다. 그 1개의 조직체가 원활히 잘 운영되어야만 그 위로 17개 시·도와 그 곳에 속한 8,500여명의 회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된다.

반백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건축사협회가 과연 우리 건축사들에게 세월만큼의 가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볼 시점이라고 본다.

이와 함께 한편으로는 우리 건축사들이 점점 쇠락해 지고 있는 건축 환경에 무관심해 진 것도 인식해야 한다.

이 위기에 빠진 건축계를 위해 이제는 상호 호응해 주는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 '손뼉'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말이 있다. 무언가 이제는 서로 관심을 갖고 함께 대응해 나가야할 그러한 중대기회에 우리는 서있는 것이다.

2015. 7. 9  
취임 100일을 맞아

반백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건축사협회가 과연 우리 건축사들에게 세월만큼의 가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볼 시점이라고 본다.  
이와 함께 한편으로는 우리 건축사들이 점점 쇠락해 지고 있는 건축 환경에 무관심해 진 것도 인식해야 한다.



▲ 2015. 4. 1 회장 취임시 다짐했던 초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건축설계 업무의 혁신을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히든챔피언 마이다스아이티,  
건축사님과 함께 대한민국 설계문화를 만들겠습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2012년 12월 1일)” 그로부터 2년 반.. 우리 건축사들은

지난 2012년 12월 1일 새로운 사회통합적인 경제모델을 구축하고 자본주의 경제 원리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었으나 현재 우리 건축사들은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부족하고 현실적인 환경에 부딪혀 협동조합 설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설립과정과 현재 우리 건축사들의 협동조합 설립 현황 등의 정보를 게재하오니, 관심 있는 건축사들의 관련 업무에 참고하기 바란다.

- 편집자주

## 협동조합 기본법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5인 이상 조합원을 모으면 누구나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억원 이상이면 출자금 제한을 없애고, 200명 이상이면 설립 동지자를 5명으로 줄이는 등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게 핵심이다. 3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합쳐 연합회 설립도 가능하게 됐다.

## 협동조합과 동업의 비교

항 목	사업자 성격	설립자지위	책임범위	기관설치	사업운영	고용확대
협동조합	법인 사업자	사업주	유한책임	필수설치(총회,이사회)	협동조합법에 따름	조합가입 용이
동업	공동 사업자	사업주	무한책임	설치 불가	사적인 동업계약	고용계약에 따름

##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비교

구 분	협 동 조 합	주식회사 (상장회사)	
소유 제도	소유자	· 조합원	· 주주 (주식소유자)
	투자한도	· 개인출자 한도 제한 (총 출자의30%이하)	· 출자 제한 없음
	지분거래	· 없음	· 지분거래 가능
	가치변동	· 출자가격의 변동이 없음	· 주식시장에서 수시변동
	투자상환	· 상환 책임 있음	· 상환책임 없음
통제 제도	의결권	· 1인1표 · 다수의 평등한 지배	· 1주 1표 (주식수에 비례) · 소수 대주주의 지배
	경영기구	·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 이사회에서 선출한 경영자 또는 선출직 상임 조합장	· 주주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영자, 혹은 대주주의 자체경영
수익 처분 제도	내부유보	· 내부 유보를 강하게 선언 (잉여금의 10%이상) · 사회적 기업은 100%유보	· 내부 유보는 제한적
	이용배당	· 협동조합 배당의 원칙 (잉여금의 30%~50% 이상) · 출자 배당에 선행함	· 없음
	출자배당	· 출자금의 이자로 이해 (잉여금의 10%이하) · 배당률의 제한, 일부 미실시	· 위험을 감수한 대가 · 제한 없음

## 협동조합의 유형(가지)

- ① 소비구매 협동조합      ④ 사업자 협동조합      ⑥ 사회적 협동조합
- ② 소비이용 협동조합      ⑤ (프랜차이즈 형태)      ⑦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
- ③ 직원 협동조합      ⑤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 ① 발기인 5인 모집      ④ 창립총회 의결      ⑦ 출자금 납입(현물 출자 가능)
- ② 정관 작성      ⑤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      ⑧ 설립등기 등 8단계를 거쳐야 한다.
- ③ 설립동의자 모집      ⑥ 이사장에게 사무 인계

설립신고까지는 발기인이, 설립등기까지는 이사장이 업무를 책임지고, 협동조합은 설립신고가 아니라 설립등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기존 협동조합은 모두 설립신고를 한 후 인가를 받게 되어 있지만, 협동조합기본법의 협동조합은 설립신고 후 인가 절차 없이 등기를 할 수 있게 했다.

발기인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협동조합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않지만, 자연인인 개인은 물론 주식회사 등 법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협동조합 설립시 행정기관별 제출할 서류

시·도지사	등기소장	세무서장
설립 신고 (1)	법인 등 기 (2)	사업자등록
1.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2. 정관(사본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임원명부 1부, 임원 이력서 및 사진 (3x4) 6. 설립동의자 명부 7. 수입지출예산서 1부 8. 출자자명부 및 출자액 9. 창립총회 개최공고문	1.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된 서류 모두 2. 추가로 가. 협동조합설립신고필증 나. 잔고증명서 다. 임원취임승낙서,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1. 법인등기때 사용된 모든 서류 2. 추가로 법인등기부 등본
협동조합 설립신고필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 창립총회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처음부터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것이 효율적 (비용소요)

## 건축사업도 협동조합 창립 가능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건축사업도 협동조합으로 가능하다. 협동조합의 정신에 따라 건축사가 자율적으로 조합원이 되고 공동 매뉴얼에 의한 공동설계(생산)·공동영업·공동사업 등 수익 창출과 배분에 관하여 조합원간 합의할 수 있게 됐다.

## 건축사 협동조합 형태에 따른 사업분석

### 1) 지역별 소규모 협동조합

시·도별 또는 군·구별 등 지역별로 소규모 협동조합을 결성한다면 현재 형성된 시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즉 시장의 규모를 확장 개척하는 것은 어렵지만 현재 확보되어 있는 시장에서 경쟁으로 상실한 시장을 복구하는 정도와 효과적인 운영으로서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군이 지역에 한계를 두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특성에 맞는 사업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BIM 설계를 위하여 BIM 장비구입 및 이용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협동조합도 가능하다. 지역별 소규모 협동조합이 추진 가능한 사업은 건축사업무 기준 및 대가 공표·소규모건축공사사업 수주 및 알선·건축설계수주 및 알선사업·건축설계 하청관련업 직영·건물관리업·동사무소 운영·설계재료 공동구입 사용·지사업 등이 가능하다.

### 2) 전국 연합회

전국이 단일화된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대부분 건축사가 한 협동조합에 가입하든지, 각 협동조합이 모여 연합회로서 결성된다면 집결된 자본과 인력을 이용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우수자재 추천 및 특기사업·건축설계수주 및 알선사업·건축설계하청관련업 직영·건물관리업·합동사무소 운영·설계재료 공동구입 사용·건축사업의 전문화 유도·사무소 설립 기준 정립·종사자 우개선·복지사업·직영사업투자 등이 가능하다.

## 지역별 협동조합 설립운영 현황

※ 2015년 초 자료로 현재와 조금 다를 수 있음

지역	조합명	설립일자 (조합원수)	출자총액 (단위:천원)	현재추진 사업	향후사업 계획
서울	동부종합건축사 사무소협동조합	13.12 (16명)	8,000	×	×
	영등포유지관리 점검협동조합	14.7 (30명)	15,000	·유지관리	·
	마포건축사업 협동조합	14.7 (6명)	18,000	·유지관리	· 자체업제 협력체결
	대한건축물유지 관리경영협동조합	13.8 (13명)	130,000	·협동조합 대리점사업	· 사업개발 → 대리점활성화 · 15개사업단운영
	대한건축물유지 관리경영협동조합 (안산대리점)	13.12 (80명)	80,000	· 감리단 운영 · 유지관리	· 부동산개발업 * 현재 : 8억 적립, 10억적립시 사업추진
대전	도시예술험정협동조합	13.5 (12명)	12,000	·유지관리	· 도시재생 사업
울산	울산건축사 협동조합	14.1 (20명)	10,000	·설계용역 ·유지관리	· 부동산개발업
	울산건축 협동조합	14.6 (22명)	33,000	·부동산 개발업	· 부동산개발업
경기	경기동부건축사업협동조합	12.5 (49명)	미확인	·유지관리	·유지관리
충남	당진지역 건축사업협동조합	14.3 (38명)	38,000	· 계획설계 예치 · 허가포지 판매	· 건축물측량 (토목사무실개설)

## 건축사 협동조합 설립 후

건축사 협동조합 설립 후 몇몇 조합에서는 소속 건축사들의 인식개선과 경제적인 장점이 나타나면서 해당 지역의 건축사들이 조합에 가입하려는 문의가 많아졌다고 한다.

경기도 안산 지역의 대한건축물 유지관리경영협동조합 김원인 조합장(건축사/주)건축사사무소 가인은 “처음 출범당시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많은 조합원(건축사님)들의 협조로 수월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적립금을 가지고 기존 감리단 운영과 유지관리에 이어 부동산개발업과 자재 관련 등의 다양한 사업 분야로 확대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최초의 울산건축사사무소 협동조합 이재용 전무(건축사)는 “확실히 조합 설립 후 1인 건축사사무소들의 가입이 늘었고 그들의 소득 증대가 이뤄졌다”고 말하며 “단체라는 명의로 일을 진행하다보니 조합원 개개인들이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찰가점이 있는 협동조합 명의로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었고, 출자금 사용이 제한되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나타나는데 등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가 발생했다”고도 말했다.

이외에도 2개의 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한 건축사법과 개별업무를 하면서 자율협의를 통해 운영토록 한 협동조합법과는 상충된다는 점, 그리고 협동조합도 일정한 거래 분야의 시장점유율이 50%를 초과하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정돼 각종 규제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협동조합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 지역에서는 전남 목포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목포지역 건축사회에서 추진위원을 맡고 있는 백재봉 건축사(백 건축사사무소)는 “현재 3인의 조합원들이 신청하였고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으며 설계와 감리, 유지관리 사업을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올 하반기에 창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새로운 제품. 더 나은 구매 방식

비즈니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Autodesk Subscription 옵션이 포함된 최신 소프트웨어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Autodesk 제품 영구 라이선스는 2016년 1월 31일 이후에는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www.autodesk.co.kr](http://www.autodesk.co.kr)에 방문하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문의 : 한국씨아이엠(주) 강민구 T. 02-772-5842 H. 010-3451-3539 E. mkkang@kcim.co.kr



\*적용 대상 AutoCAD LT 및 AutoCAD 제품군 Desktop Subscriptions, 일부 Autodesk 개별 제품, Autodesk Design & Creation 제품군 Desktop Subscriptions의 연간 또는 다년제 계약을 구매할 때 Autodesk 권장 소비자 가격에서 25%를 할인해 드립니다. 프로모션은 적용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의 기존 릴리스 버전에 대한 영구 라이선스를 보유한 고객에게 적용됩니다. 기존의 영구 라이선스는 유지되며 Desktop Subscription은 별도의 추가 구매입니다. 전체 제품 목록, 세부 정보, 제한 사항 등은 [www.autodesk.co.kr/promoofferconditionslegacy](http://www.autodesk.co.kr/promoofferconditionslegacy)를 참조하십시오.

\*\*다년제 Maintenance Subscriptions이 있는 AutoCAD LT 및 AutoCAD 제품군, 일부 Autodesk 개별 제품, Autodesk Design 및 Creation 제품군의 신규 영구 라이선스를 구매할 때 Autodesk SRP 권장 소비자 가격에서 20%를 할인해 드립니다. 전체 제품 목록, 세부 정보, 제한 사항 등은 [www.autodesk.co.kr/promoofferconditions](http://www.autodesk.co.kr/promoofferconditions)를 참조하십시오.

광양시는 지역주민의 취미생활 및 프로그램운영, 체력증진 등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 제공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여 주민편익증진 및 자치기능 강화에 기여하고자 중축공사의 설계를 일반 설계공모방식으로 진행함.  
 심사위원 : 발주청에서 심사위원 명단 공개를 불허함에 따라 미 게재함

당선작 : (주)리드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봉환성 건축사  
 우수작 : (주)프레스 건축사사무소      조두상 건축사  
 가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류가람건축      류연창 건축사

#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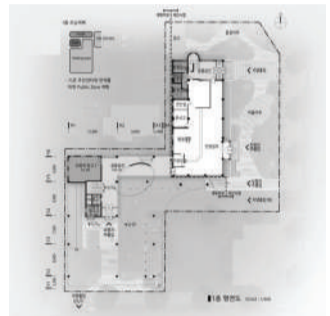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남 광양시 중동 1314-3번지 외 필지  
 대지면적 : 2,487.40㎡  
 건축면적 : 1,345.59㎡  
 연면적 : 3,221.08㎡

건폐율 : 55.30%  
 용적률 : 123.71%  
 규모 : 지하1층 / 지상4층  
 구조 :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금속판넬, 고밀도 목재 패널,  
 로이복층유리  
 주차 : 37대(장애인2대, 경형10대 포함)



**당선작**  
 봉환성 건축사 (주)리드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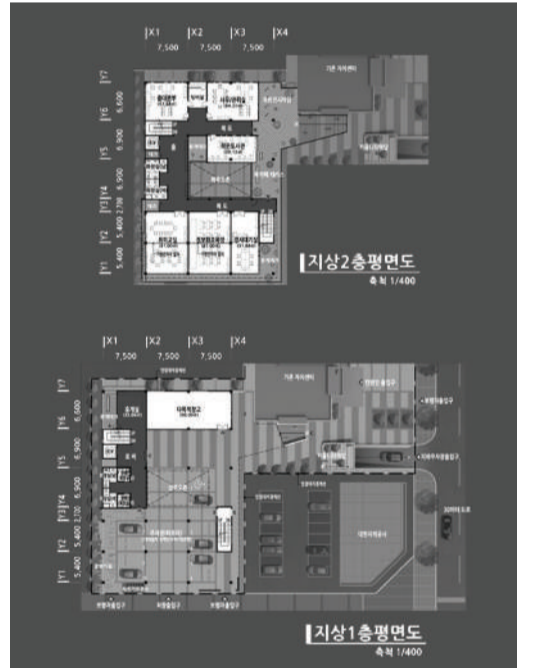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남 광양시 중동 1314-3번지 외 필지  
 대지면적 : 2,487.40㎡  
 건축면적 : 1,275.69㎡  
 연면적 : 2,935.85㎡  
 건폐율 : 29.97%

용적률 : 80.79%  
 규모 : 지하1층 / 지상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 : 고밀도 목재 패널, 금속외장재, 무색면시멘트판 로이복층유리  
 주차 : 32대(장애인전용주차장 2대 포함)



**우수작**  
 조두상 건축사 (주)프레스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 전남 광양시 중동 1314-3번지 외 필지  
 대지면적 : 2,487.40㎡  
 건축면적 : 1,237.96㎡  
 연면적 : 3,738.64㎡

건폐율 : 49.77%  
 용적률 : 123.98%  
 규모 : 지하1층 / 지상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 : 알루미늄판넬, 실버징크판넬,  
 알루미늄프로폰바, THK24mm로이페어그라스,  
 시멘트물탈위 분타일  
 주차 : 43대(장애인전용주차장 4대 포함)



**가작**  
 류연창 건축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류가람건축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무등산국립공원에 생태관광 기반시설인 생태탐방연수원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생태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기 위하여 신축공사의 설계를 일반설계공모방식으로 진행함.

당선작 : (주)그림신도시 건축사사무소  
우수작 : (주)발해 건축사사무소

고형석 건축사  
이주경 건축사

# 무등산국립공원 생태탐방연수원 신축 설계공모

**AXIS** 방향성  
무등산의 경주요를 연결하는 축

**OPEN** 개방성  
무등산의 숲길을 통과하여 열다.

**VIEW** 시선  
시야의 손쉬운 확보로 생태요소를 체감한다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805번지 및 덕의동 1번지  
 대지면적 : 41,417.00㎡  
 건축면적 : 2,145.79㎡  
 연 면 적 : 2,983.52㎡  
 건 폐 율 : 5.18 %

용 적 륜 : 4.41%  
 규 모 : 지상2층  
 구 조 : 철근 콘크리트 구조  
 외부 마감 : 노출콘크리트, 테라코타, 고밀도 목재 패널  
 주 차 : 13대(장애인2대, 경차2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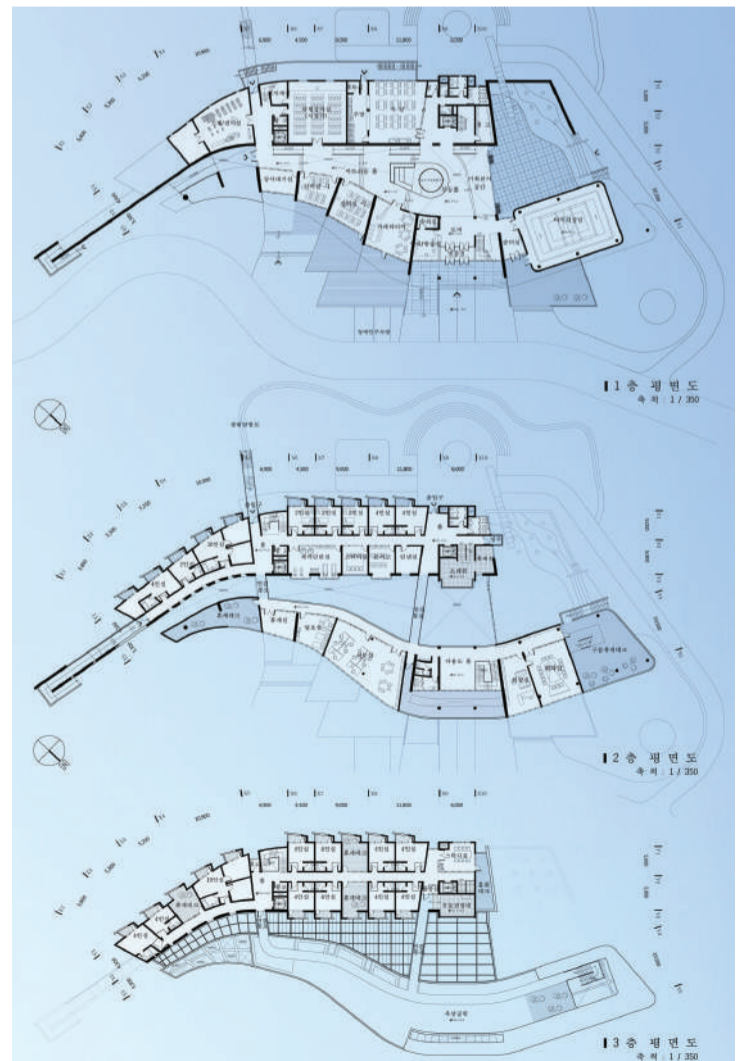
**당선작**  
고형석 건축사 (주)그림신도시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805번지 및 덕의동 1번지  
 대지면적 : 41,417.00㎡  
 건축면적 : 1,940.38㎡  
 연 면 적 : 2,939.43㎡  
 건 폐 율 : 4.68 %

용 적 륜 : 7.10%  
 규 모 : 지상3층  
 구 조 : 철근 콘크리트 구조  
 외부 마감 : 적삼목, 화강석, 고강도흙다짐벽  
 주 차 : 33대(장애인2대, 대형1대 포함)

**우수작**  
이주경 건축사 (주)발해 건축사사무소



# London, 고전과 모던이 함께하는 곳\_1부



조창근 교수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City University London 대학, 방문교수)  
 chocg@chosun.ac.kr

지난해 여름부터 City University London 대학에 연구원으로 와서 런던 생활이 벌써 10개월이다.  
 5, 6월의 런던은 전형적인 유럽의 봄날씨로 양털구름이 지나고 맑고 높은 하늘, 그 아래 런던의 도심 속 풍경은 템즈강을 따라 상하로 펼쳐진 고전과 모던의 멋을 만끽하기에는 너무나 세련된 도시이다.



▲ 사진1, 런던의 빨간색 아이콘 : 폰박스, 이층버스, 및 세인트판크라스역

런던 곳곳에는 빨간색의 폰박스와 이층버스를 쉽게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전화박스 같지만, 이 붉은 빛깔의 폰박스를 설계한 사람은 Giles Scott이라는 건축가인데 영국에서는 건축으로 유명한 집안이다.  
 바로 그의 조부인 건축가 George Scott 이 이태리식 고딕양식에 붉은 빛깔을 입혀 세인트판크라스역을 설계하였는데(사진1), 이는 폰박스 및 이층버스와 더불어 런던의 빨간색 아이콘을 상징하는 대표 건축물이 되었다.



▲ 사진2, 고전과 모던이 함께하는 중세 런던탑과 Bank가의 초고층 현대 건축물

런던은 이태리 및 프랑스 등 유럽의 여러 도시들처럼 곳곳에 중세와 옛 모습들을 그대로 간직한 과거와 고전의 도시이지만, 반면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와 더불어 유럽에서는 현대적인 도시로서의 개발에 가장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던화된 도시이다.

“고전과 모던이 함께 하는 곳이다.” 중세와 영국풍 고딕 건축의 고전주의와 초고층 콘크리트 구조의 모더니즘적 외형의 런던, 그리고 문화와 예술에서 여전히 고전작품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성행하는 곳이면서도 첨단 IT 및 금융 강국으로서 현대도시 속의 모던화된 런던. 사진2 에서처럼, 템즈강을 뒤로 12세기경에 지어진 중세 런던탑과 바로 인접한 Bank 거리의 초고층 현대 건축물들, 두 고전과 모던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는 템즈강과 더불어 너무나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뉴욕과 함께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인 Bank 거리는 다양한 현대 구조물의 집합체로 모던화의 실험장소이다. 초고층 구조에서 성냥갑 모양을 버리고 곡선과 경사 부재 및 구조형식이 다양하게 설계와 시공에 적용되었다.

유럽에서 현재 최고층 건축물인 “The Shard”는 삼각피라미드 형식에 첨탑이 입체적으로 개방된 형식으로는 세계 최초의 건축물로서 고층의 강풍과 같은 기후여건 속에서 경사진 부재 및 유리 외벽 등의 시공에 많은 노하우를 남긴 사례가 되었다. (사진2 우측1번째).



▲ 사진3, 런던의 수직지향적 고전주의 건축



▲ 사진4, 기존의 고전 외벽을 살린 신축건축

Bank 거리를 벗어나면 런던과 그 근교는 대륙의 유럽 도시들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과거와 고전적인 도시로서의 멋, 그리고 푸른 초원이 끝없이 펼쳐진 전원과 하얀 벽돌집의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시골 풍경이 매료로 느끼게 한다.

런던은 산업혁명 이후에도 복고풍으로서의 고딕양식을 선호했는데, 대화재로 소실된 이후 40여년에 걸친 공사로 1870년경에 재건되어 런던의 랜드마크가 된 국회의사당 건물이 대표적이다(사진3).

빅토리안 시대 영국의 힘을 상징하는 강력한 수직적 라인을 선호하여 “수직지향적 고딕양식”이라는 영국식 고전주의에 맞게 다시 설계된 것이다.

내셔널갤러리 등과 같이 공공 및 교회 건축물에서도 주로 석조의 웅장함을 살린 고딕 및 수직적 라인을 강조한 복고풍의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고전과 복고풍에 대한 런던의 애정은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오래된 고전양식의 외벽을 신축건축물에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 가설재를 이용하여 옛 외벽을 그대로 남겨둔 채 신축공사하는 현장을 간혹 볼 수 있다(사진4).

# “전남 영암지역 최초 개업 건축사” 강길선 건축사와의 만남

2015년 1월 전라남도 목포지역 건축사회에 소속해 있던 영암지역 건축사들이 별도 지역건축사회를 창립하여 출범했다. 전남 영암 강길선 건축사는 영암지역에서 최초로 개업한 건축사이자 영암지역 건축사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그동안 밑그림을 다져놓은 건축사이기도 하다. 다음은 지난 7월 2일 영암군 영암읍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내용이다.

**올해 초 영암지역 건축사회가 정식 발족되었습니다. 그동안 준비과정을 직접 나서서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추진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997년 개업과 동시에 목포지역 건축사회에 입회하여 활동했습니다. 그 당시 영암지역에서 건축사사무소를 개업한 사람이 저 혼자 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두 건축사님이 개업을 하셨어요, 2009년에 세 분, 2010년에 한 분, 2013년에 한 분, 그렇게 해서 현재 전체 여덟 명의 건축사님이 영암지역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은 복지회 형식으로 모임을 갖고는 있었지만 영암지역 건축사님 대부분 광주지역에서 활동을 하시고 오신 분들이라, 목포지역 건축사회 회원님들하고 문화적공감대(예 화연, 지연)가 부족하여 지역건축사회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준비과정을 걸쳐 2015년 1월에 영암지역 건축사회가 정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목포지역 건축사회 회장님이신 이경일 건축사님이 많은 자문과 고생을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영암지역 건축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이제 막 출범한 지역건축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행착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영암지역 인재장학금 기탁, 불우이웃돕기, 재능기부(저소득층 무료설계), 기타 활동으로 지역건축사회의 이미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각각 나무보다는 큰 산을 보듯이, 대한건축사회회관 큰 산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영암지역 건축사회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사로서의 걸어오신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현재 창억떡집 근처 동네입니다. 제가 자랄때(70-80년대) 가장 부촌동네였죠. 건축잡지에 나온 그림 같은 주택들이 가장 많은 동네였습니다.

해마다 새롭고 멋진 주택들이 건축됐습니다. 그런 동명동 골목길 구석구석이 제 놀이터였죠. 중학교 기술시간에 모형 만들기 숙제는 당연히 제가 보고자란 주택모형을 만들었는데, 너무나 멋지고 잘 만들었다고 칭찬을 들은 기억이 나네요.

고2때 큰형님이 기술고시 전국수석합격을 하셨는데, 그게 저에게 독(?)이 됐죠. 학교 건축공학과(82학번)에 입학하여 김수인, 박강철, 조용준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에 건축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건축공부에 입문하였고, 대학 3·4학년 때 도시락 두 개씩 싸서 학교 도서관에서 살았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전남대 건축공학과 대학원(87학번)에 입학하여 고인이 되신 임영배 교수님 연구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임영배, 신남수, 천득염 교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건축에 대한 이론공부에 폭 빠졌습니다. 이상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 졸업(석사학위)후 설계실무와 건축사 취득(96년), 97년 7월에 영암지역에 개업 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축사님께서 확립하신 건축철학을 묻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에 관심이 많고 좋아합니다. 세계문화사, 서양건축사, 한국건축사, 근대건축사, 현대건축사 등 그 가운데 대학교 4학년 때 대학원 준비하면서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지크리트 기ดอน 교수가 쓴 '공간·시간·건축(1,2권)'입니다. 저의 건축에 화두이며, 건축철학의 모든 것입니다. 한번쯤 읽어보시라는 추천을 해봅니다.

**가장 존경하는 건축사가 있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현재 전남에서 활동하시는 임경희 건축(주) 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님의 소개로, 금남로 가톨릭센터 5층에 류연창 건축사(주)종합건축사사무소 류가람건축님 건축사사무소(9년)에 입사하였는데, 그 당시 조두상(주)플러스 건축사사무소, 임경희, 최형욱(서울터 건축사사무소(주)), 정현아 현 건축사님들께서 직장 선배였죠. 이론 공부만 하다 실무를 하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조두상 당시 실장님 바로 옆자리에서 개인 특별 교육을 받았죠. 밤과 낮, 주말과 휴일도 없이 실무를 읽혔습니다. 특히 류연창 건축사님의 건축에 대한 열정과 사랑, 카리스마, 자존심은 대단했습니다. 가끔 건축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 생각나는 건축계의 큰 스승님이시지요.

**사회활동에 대해**

1998년 영암JC(청년회의소)에 몸담고 영암 지역발전 및 사회봉사에 적극참여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 국제봉사단체인 영암라이온스에 입회하여 지속적인 사회봉사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으며, 2년 뒤에는 회장직을 수행하게 될 예정으로 그 동안 영암지역에서 받은 과분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되돌려 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 건축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선배 건축사님의 모습이 몇 년 뒤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의 위대한 업적을 세우신 선배건축사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수고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후배 건축사님들께는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건축사의 위상 향상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주시길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향후 계획 및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스스로 약속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 년에 한번 씩 서울 건축박람회 참여하기, 건축 매너리즘에서 탈피하기, 사무소 운영을 멋지게 마무리하기 그리고 얼마 전에 골프에 입문 하였는데, 너무나 어렵고 민감한 운동 같습니다.

은퇴 전까지 싱글골퍼가 되고 싶은 목표를 세웠는데, 가능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취재 : 서재형, 김미영, 박종호 건축사 기자  
정리 : 곽승국 전담기자 gjkira@empas.com



전남 영암/우광 건축사사무소 강길선 건축사



▲ 지난 7월 2일 전남 영암군 영암읍에 위치한 사무소에서 진행된 편집위원들과의 인터뷰

## 강길선 건축사가 설계한 작품

영광공공도서관 이설공사



함산면 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미암면 사회단체 연합회관 신축공사



'가칭' 광양 백운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목포 하당중학교 신축공사

**조선대 건축학부 4학년 1학기 도시설계프로젝트 평가회 열어**

- 지난 6월 25일 조선대 제1공학관에서 타대학 교수들과 건축사 초청한 가운데 진행



지난 6월 25일 조선대학교 제1공학관에서 건축학과 4학년 1학기 도시설계 평가회가 열렸다. 이번 설계 주제는 광주역 일대 도시 재생계획으로, 광주역 역세권 내 도시 가로 공간들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물리적 재생을 통한 도심 재생 방안을 제시했다.

이 날에 담당 지도교수인 염대봉 교수와 박성진 교수뿐만 아니라 박정근 제주대 건축학부 교수, 박선욱 경남대 건축학부 교수 그리고 지음재건축 용융식 건축사가 참석해 학생들의 작품을 평가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광주역 일대를 총 5구역으로 나누고, 상권이 몰락한 A구역을 대상으로는 평화시장과 우치로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생활양식을 제안했다.

효동초가 위치한 B구역은 교육클러스터를 형성해 가로경관, 주거 및 상권 그리고 교육·편의 등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C구역은 밝은 사회 건강 도시'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기존 오리요리거리와 자동차거리의 특성화거리를 강화시키고, 주변에 상업과 숙박 시설 및 주거시설을 계획하였으며, 건축자재의 거리가 위치해 있는 D구역에서는 창업을 통해 창작문화를 활성화 시키는 도시재생 개념을 도입하였다. E구역은 '광주역으로 녹색 문화 공간'의 개념을 적용시킨 설계를 보여주었다.

작품을 제출한 학생들은 "광주역 일대의 전반적인 도시 재생을 구상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다"고 말하는 반면 "담당교수님들 뿐만 아니라 초청된 교수님들과 건축사분들의 크리틱을 들으면서 좀 더 알찬 평가회가 된 것 같다"고 만족해했다.

조선대학교 조은비 학생기자 chob0316@gmail.com

**순천대 건축학부 5학년 1학기 설계 공개 크리틱 진행해**

- 전체 학부생들도 참관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시도로 학부 분위기 쇄신



지난 6월 10일 순천대학교 공과대학 1호관에서는 건축학부 5학년 1학기 설계 공개 크리틱이 진행됐다. 이번 설계의 주제는 식물이 햇빛 방향을 향해 자라는 성질인 'Tropism(굴성)'에서 작용되는 'Auxin(옥신)'의 특성이 반영된 설계안으로 '도시농업센터', '피쉬마켓', '주차장' 등 22개의 다양한 작품들이 제안됐다.

제출된 작품들을 건축학부 복도와 3층을 이용하여 전시했고, 발표와 크리틱은 자유로운 형식으로 이날 오전부터 진행됐다. 학생들은 금번 크리틱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2학기에는 졸업작품전에 출품하게 된다. 크리틱이 끝난 후 작품들은 다른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복도에 며칠간 전시되었으며, 학생들은 복도를 지나면서 전시된 작품을 감상하고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공개 크리틱과 전시는 전체 학부생들도 참관이 가능하게 한 점에서 그 동안의 폐쇄적이었던 마감분위기를 쇄신하고자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학부 전체에 자극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순천대학교 건축전은 건축학부 3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행사 및 전시 행사 등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

순천대학교 김대윤 학생기자 eodbs411@naver.com

**전북대 건축공학과 농촌마을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나선다**

- 학생 및 교직원 40여명 오는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전북 완주군 소양면 지역으로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봉사단이 오는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약 5일간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으로 농촌봉사활동에 나선다.

이번 봉사활동은 건축공학과 학생과 더불어 전북대 시설과 교직원, 대학원 한옥학과 학생들, 전주 비전대학교 건축과 학생들 등 총40여명이 함께 할 예정이다.

이들은 소양면 일대에 혼자사시는 노인들이나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10여 채 집의 부엌, 화장실, 지붕 등을 고치고 도배 등의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전북대학교 봉사단은 매년 여름방학에 맞추어 전라북도 지역의 노인들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건축봉사를 실시하고, 겨울에는 해외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겨울방학에는 라오스 산골마을인 호이반카 마을에 초등학교를 선물하고 왔다. 겨울 봉사에 참여한 학생대표 김도형 학생(3학년)은 "우리가 전공하는 건축을 통하여 사회의 힘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봉사한다는 점에서 전공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다. 또한 건축학개론에서 건축사는 건축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전북대학교 정수진 학생기자 abbin520@naver.com

**사랑에서\_여덟**

**네 박자**

얼마 전 카톡으로 동영상 하나가 배달되었다. 2년 전 모 방송 '불후의 명곡' 코너에서 가수 송대관의 노래를 뮤지컬 배우 차지연이 부른 '네 박자'라는 노래였다.

난 처음 보고감동했다. 그리고 몇 번을 다시 봤다. 이렇게 180도 반전이 가능하구나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간 노래들이 편곡을 통해 약간 맛이 다르게 부른 것은 많이 봐 왔지만 이런 반전과 감동은 나에게 처음이었다. 비록 2년 전에 있었던 것을 때늦게 보았지만, (혹시 지금까지 못 보신분이 계신다면 유튜브에서 보시길 강추한다.)

'나가 기쁠 때/ 내가 슬플 때/ 누구나 부르는 노래/ 내려 보는 사람도/ 위를 보는 사람도/ 어차피 쿵짝이라네/.../ 나 그리울 때/ 너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르는 노래/ 내가 잘난 사람도/ 지가 못난 사람도/ 어차피 쿵짝이라네/.../ 울고 웃는 인생사 / 소설 같은 세상사/세상사 모두가 네박자 쿵짝'이런 노래다.

트롯 가수 송대관이 부를 때는 아줌마들이 경쾌한 리듬에 맞춰, 흥(興)에 겨워서 즐겁게 춤을 추던 노래가, 편곡되어 차지연이 가야금 선율에 따라 퍼포먼스와 함께 불렀을 때는 애뜻하고 힘든, 삶이 녹아 있는 여인네의 한(恨)을 표현하는 노래가 되었다. 즉 '흥'이 '한'으로 반전된 것이다.

참 그렇다. 노래만이 아니라 건축디자인도 마찬가지다. 같은 부지에 똑같은 건축주의 요구조건이라도 설계자가 어떻게 이해하고, 편곡해서 소화하느냐에 따라 백이면 백가지의 다른 대안들이 나온다. 그러하니 건축을 대하는 설계자의 본질적인 철학과 시민을 위한 마인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정답은 없다. 단지 다양한 해법이 있을 뿐이다. 그 해법은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다양성 속에서 조화의 지혜고 함께 있어야 한다.

하나하나의 건축물이 모여 도시를 이루고, 그 도시는 다시 우리의 삶과 모습을 규정짓기 때문이다.

건축도 음악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한다. 아마 그래서 독일의 시인이자 문학가인 괴테는 '건축은 동결된 음악이다.'라고 했을 것 같다.

음악이 장소와 환경, 동행자와 시간, 나이와 기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감동을 주는 것처럼, 건축도 일상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이용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멋진 작가들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쿵짝 쿵짝 쿵짝 쿵짝...'

박흥근 자문위원\_aforyou@naver.com

**건축사 만평**

무슨 심보일까?



심상봉 건축사 작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법무법인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윤춘주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한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전화 : 062-226-7400 팩스 : 062-225-5310  
홈페이지 : nicelawyer.co.kr / 윤변호사.com



**광주 심상봉 건축사(AD그룹 건축), 미술작품 첫 초대전 개최**

- 오는 7월 23일까지 전남 곡성군 곡성읍에 위치한 '카페갤러리 719'에서 전시



광주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대표 심상봉 건축사가 오는 7월 23일까지 전남 곡성군 곡성읍 삼안동길에 위치한 카페갤러리 719에서 미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지난 6월 23일 오픈식을 시작으로 첫 초대전을 개최한 심상봉 건축사는 수채화와 유화 등 미술작품을 통하여 건축사이자 미술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전시회에서는 여행을 하면서 틈틈이 그려놓은 스케치를 전시하고 있다. 심상봉 건축사는 광주건축사회 제13대 회장(2011. 3 ~ 2013. 3)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미술협회 정회원과 광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겸임교수, 광주시민사회단체 총연합 상임공동대표, 광주광역시와 목포시 건축 경관 디자인 위원, 광주 남광교회 장로, 광주고등법원 검찰청 민사 형사 조정위원 등 사회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 북구청 건축과 김경중 지방시설주사, 모범 공무원표창 받아**

- 지난 6월 30일, 오랜 공직의 경험과 전문성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 수상



광주광역시 북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업무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김경중 지방시설주사가 2015년 상반기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지난 6월 30일 김경중 지방시설주사는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오랜 경험과 건축에 대한 전문성으로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김경중 지방시설주사는 평소 뛰어난 업무처리 능력과 성실한 생활로 동료들에게 인심이 두터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광주광역시, 건축설계공모 심사제도 개선한다**

- 지난 6월 21일 건축설계 공모 방식에 대한 개선안심사위원 명단 공개 등) 내내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 6월 21일 건축설계공모 심사제도 개선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설계 공모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심사위원 명단 공개는 설계공모 시 또는 작품접수 후 참여자 입회하여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공모작 전시 계획은 사전에 명시하고 당선작과 입상작, 참여 작품을 시청 1층에 전시해 시민들에게 공개 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를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된 건축설계공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설계공모 심사 제도 개선으로 심사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투명한 심사과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201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행복을 담은 건축학교 광주지역 교육 개최**

- 광주건축가회 주관, 가족답사 프로그램 '삶속의 건축' 주제로 7월 25일부터 8월 15일 진행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건축가회에서는 11세 어린이부터 19세 청소년과 그 가족(부모, 조부모, 친척, 형제 등)까지 참가할 수 있는 201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행복을 담은 건축학교 광주지역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열리는 토요문화학교는 '삶속의 건축'이란 주제로 가족답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운영방식은 가족단위 신청자 중 총 60여명(20가족)을 선발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광주지역 건축물을 답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오는 7월 15일 오후 5시에 홈페이지(<http://cafe.naver.com/toyoarchschool>) 게시판에 선발자 명단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복을 담은 건축학교 제3기 광주교육이 9월부터 11월까지 총7회로 개최될 예정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건축가회(062-512-8046)로 문의하기 바란다.

**광주시, "2015년도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공모**

- 나무심는 건축인 주관, 오는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접수



광주광역시 주최하고 나무심는 건축인이 주관하는 2015년도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공모가 오는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 된다.

응모대상은 광주광역시 소재의 대상으로 아름다운 도시문화 경관에 기여한 공개공지, 담장가로와 쌈지공원, 벽면 및 옥상녹화, 아파트 등 이다.

참가 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작품제출 내용은 A3규격 내에 설명서와 장소가 찍힌 사진 5매 이내를 담아 나무심는 건축인 사무실(광주 서구 치평동 1208번지 골든빌오피스텔 310호)로 제출하면 된다.

입상작에게는 광주광역시장상 및 기념동패가 부착되고 오는 11월 중 개최되는 제2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기간에 전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나무 심는 건축인 사무실(062-373-3131)로 문의하기 바란다.

**목포대 산업기술대학원 한옥학 전공신설 및 2015년도 신입생 모집**

- 입학원서 교부 및 접수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립목포대학교 산업기술대학원에서는 국가 최고의 한옥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15년도 한옥학 전공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과정은 석사학위과정(공학석사, 한옥학)이며 지원자격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자(취득예정자 포함)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이다.

입학원서 교부 및 접수는 오는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목포대 산업기술대학원 행정실에서 진행되며, 면접은 오는 7월 29

일 각 지정 고사실에서, 합격자는 8월 5일 목포대 산업기술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김지민 한옥학 전공 주임교수는 "최근 한옥은 정서뿐만 아니라 건강성, 조형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건축비와 설계 및 시공 등 개선해야 할 분야도 매우 많아 한옥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고 밝히며 "본 대학원에서 국가 최고의 한옥전문가를 배출하는데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 및 입시문의는 목포대 산업기술대학원 행정실(061-450-2404~5)로 문의하기 바란다.

**(사)광주단연, 그림그리기&사진공모전 7월 말까지 접수마감**

- 제12회를 맞이한 두 공모전, 7월 31일까지 작품접수 받아



제12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행사 일환으로 개최되는 그림그리기 대회와 사진공모전 작품 접수가 오는 7월 31일 마무리된다.

'도시경관과 내가 살고 싶은 집'이라는 주제로 유치원생과 초·중 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그리기 대회는 입상자에게 광주광역시교육감상과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장상, 400만원 상당의 상품이 수여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사진공모전은 (사)광주건축단체

연합회장상과 총 500만원 상당의 상품이 수여된다. 이들 입상작품은 오는 11월 4월부터 7일까지 광주광역시 시청 1층 시민홀에서 개최되는 제12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기간 중 전시될 예정이다.

관심 있는 많은 독자들의 참여를 바라며 응모방법 및 제출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고 문의는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062)521-0025~6)로 하면 된다.

**[ 2015 광주건축사회 건축사실무교육 계획 공지 ]**

건축사법 제30조의2, 영 제30조 규정에 의거 광주건축사회 2015년도 건축사실무교육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교육 신청 기간에 교육을 신청하여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월	일시	종류	과목	강사	장소	교육시간	교육비
7월	28일(화) 14:00~16:00	전문	Passive 설계디자인기법	신재역 교수 (울산대)	5층 대강당	2시간	30,000원
	28일(화) 16:00~18:00		건축공사 감리실무	조병섭 건축사 (서울)		2시간	30,000원

- 교육신청기간  
해당 교육일 3주 전부터 신청가능
- 출석인정  
① 매 과목 교육 시작 후 14분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교육이 인정되며 15분 부터는 지각 처리되어 교육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환불되지 않음)  
② 매 과목 교육 종료 후에는 반드시 강의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석체크  
① 건축사등록원 등록카드 또는 QR코드(교육원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발급)를 이용하여 교육장 입구에 비치된 바코드 스캐너로 스캔하여 출석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 수강신청절차  
①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www.kiraeb.or.kr](http://www.kiraeb.or.kr))접속  
② 협회 ID / PW 로 로그인  
③ 교육과정안내, 실무교육선택 => "건축사회선택" 에서 "광주건축사회" (선택 => 교육일자 확인 후 각 교육명 클릭)  
※ 광주건축사회 선택 후 "신청 중" 클릭 후 선택 신청도 가능
- 기타문의사항은 광주건축사회(062-521-002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건축사회, 2015 광주하계U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서포터즈 지원 나서**

- 70여명의 광주지역 건축사와 사무소 직원, 지난 7월 2일부터 12일간 대회 경기 응원 활동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정명철)는 지난 6월 25일 광주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70여명의 광주지역 건축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광주건축사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광주건축사회가 광주시의 시민 서포터즈 모집 요청에 따라 별도 서포터즈단을 구성하고 7월 3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는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마련했다. 발대식 본행사에서는 회장인사말과 함께 서포터즈 활동계획 보고, 성공개최를 위한 서포터즈 선언문 낭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정명철 회장은 "서포터즈 참가자 여러분들 모두 광주하계 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무장하고 참석해 주셨다"고 말하며 "광주건축사 서포터즈단이 '열정, 꿈, 화합'이 넘실대는 광주 하계U대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건축사 서포터즈단은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진행된 배구경기의 서포터즈로 활동했다.

**광주건축사회와 광주 남구청 '남구 건축민원 상담건축사 발대식' 개최**

- 6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남구청 8층 건축과에서 건축민원상담 진행



광주광역시건축사회와 광주광역시 남구청(청장 최영호)은 지난 6월 12일 광주 남구청 7층 상황실에서 건축사 20여명과 관계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 건축민원 상담건축사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남구청에서 광주건축사회로 남구민들의 건축 민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건축사 민원상담실' 운영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여 진행됐다.

'건축사 민원상담실'은 6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휴일은 제외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남구청 8층 건축과에서 운영되며, 건축사들이 직접 건축 민원 상담사로 나서서 건축 관련 전화 및 방문 민원인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날 정명철 회장은 "전문직업인인 건축사들의 무료재능기부를 통해 건축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진행되어 남구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광주건축사회는 남구청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남구 희망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광주건축사회 임원진과 구협의회장들 거제도에서 합동 회의 가져**

- 지난 6월 19일 1박 2일 일정으로 마라톤 회의와 건축물 답사 진행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6월 19일과 20일에 경남 거제시 일원에서 임원진과 구협의회장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이사회의 및 구협의회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첫째 날 일정은 거제 장사도 답사를 마친 후 거제 대명리조트 일원에서 4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으며, 둘째 날 일정은 부산으로 출발하여 2014 부산다운건축상 대상 수상한 부산 키스아이어센터를 답사했다.

이번 합동 회의는 광주건축사회의 발전을 위한 임원진들과 구협의회장들의 단합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이번 합동회의에 경상남도건축사회 조용범 회장이 격려차 방문하여 참석자들에게 지역특산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광주건축사회, 회관 주차장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광주회원 대상, 당선작 1점에 대해 100만원 및 현상공모시 가점, 8월 31일까지 제출받아



광주건축사회에서는 현재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는 회관 건물 옆 부지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여 회원연금기금의 수익성 제고와 회원의 업무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광주건축사회관 주차장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총상금 200만원 걸린 이번 공모전의 대상 부지는 광주 북구 무등로 257(중흥동 694-8번지)이며, 참가자격은 광주건축사회 정회원이면 가능하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기간(8월 13일 ~ 8월 31일 오후 6시) 중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아이디어(안) 보고서(A4 20매 이내)와 판넬(A1 1매) 및 도면 등을 모두 제출해야하며, 심사는 9월 9일 예정으로 결과발표는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 164916번을 참고하기 바란다.

**전남 광양지역 건축사회, 광양시 백운장학회에 장학금 기탁**

- 지난 6월 22일 광양시청에서 장학금 전달식 열고 일금 2백만원 기탁



전라남도 광양지역 건축사회는 지난 6월 22일 전남 광양시청에서 정현복 광양시장에게 장학금 2백만원을 전달했다. 광양지역 회장을 맡고 있는 김래수 건축사 (종합건축사사무소 세기)는 이 자리에서 "광양지역 건축사회가 지난 2012년 9월 창립된 이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건축인들이 백운장학금 기탁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지역 건축사회는 2011년 6월 29일 전남도건축사회 이사회에서 '광양지역건축사회'를 승인받았으며 현재 25명의 건축사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건축사 업무실적 관리제도 개선 시행 안내**

- 기존 신고 범위에서 건축신고 및 기타 설계 공사감리 업무까지 확대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6월 19일부터 건축사 업무실적 관리제도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건축사 실적신고 대상 업무를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 설계·공사감리 업무에서 건축신고 및 기타 설계·공사감리 업무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 건축사 실적신고 대상 업무범위 확대

개선 전	① 건축허가 대상 등의 설계업무	② 건축허가 대상 등의 공사감리업무
개선 후	① 건축허가 대상 등의 설계업무 ③ 건축신고 대상 등의 설계업무 ⑤ 건축허가 및 신고 대상 등의 설계·공사 감리업무 이외의 공공발주 설계·공사 감리업무 (단, 민간발주 설계·공사감리 업무는 제외)	② 건축허가 대상 등의 공사감리업무 ④ 건축신고 대상 등이 공사감리업무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실적관리팀(02-3415-6851~4번)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건축문화사랑 신문 지역별 부편집인 위촉 안내**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에서 공동으로 발행하고 있는 본지 건축문화사랑 신문에서는 지역 신문의 특성을 살리고자 각 지역의 알찬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히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별 부편집인에 다음과 같이 위촉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광주지역 부편집인  
정명환 건축사  
(디에이 건축사사무소)



전남지역 부편집인  
백재봉 건축사  
(백 건축사사무소)



전북지역 부편집인  
양우현 건축사  
(백현 건축사사무소)

신축, 증축과 개축, 보수 작업을 전문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책임시공을 약속드립니다.

## 지붕 개량 전문업체 공장직영 운영

슬래브 주택, 옥상지붕 건축, 징크 자재전문(기계 임대)  
교회, 절, 전원주택, 가든, 공장, 창고 등 어디나 알맞은 용도에 맞추어 선택!

**최고의 자재** 와 **숙련된 기술력** , **최저의 시공비** 로 품질보장과 함께 고객님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또한 직접 시공하시는 분들도 모든 자재를 공장도 가격으로 판매하오니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해 드립니다.

**공장 직영** : 초대형 공장에서 직거래하므로 원·부자재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가격이 확실히 저렴합니다.  
**공장 직거래** : 주택 개·보수 : 헌집, 누수, 방수 보수, 지붕 개량  
**건축, 내부인테리어 철 구조물** : APT, 주택 리모델링  
배란다 확장, 욕실, 도배, 주방 거실 확장, 정방

슬래브 주택 공사 전, 공사 후, 제각공사, 징크주택, 주택, 공장 전경

**지붕개량 금속칼라강판**

지붕 공사의 대표 주자 **대농산업**  
\* 본사 및 공장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서흥동 530번지

☎ 062)373-6548, 6549  
374-6585

\* 유시 상호 주의

### 전북건축사회, 오토데스크 골드 파트너 (주)위메이드아이앤씨와 협약 체결

- 지난 6월 29일 최신 BIM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약 체결, 건축 설계 업무향상에 기여할 것 기대



전라북도건축사회(회장 전병갑)는 지난 6월 29일 회관 회의실에서 국내외 건설사 및 건축설계사무소에 BIM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위메이드아이앤씨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이 소속 회원들의 건축설계 업무향상 및 기술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협약 체결 주요 내용으로 (주)위메이드아이앤씨가 보유하고 있는 최신 BIM 건축설계 기술을 소속 회원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을 통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BIM을 활용한 건축설계 기술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전병갑 회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급변하는 설계환경의 변화속에서 BIM 설계교육을 통해 설계경쟁력 확보와 다가오는 3D설계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고, (주)위메이드아이앤씨 김미정 대표이사는 “수년간 BIM 컨설팅 및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건축사회 회원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BIM 건축설계기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주)위메이드아이앤씨에서는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사 BIM 설계과정'을 총 3차에 걸쳐 진행하고, 교육 신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말 또는 평일 교육 과정으로 편성하여 운영될 계획이다.

### 광주건축사회 동정

- \*입회**
  - 고재량 건축사 / 성하 건축사사무소 광주 광산구 삼우대로 232(송정동)
- \*변경(소재지)**
  - 신영기 건축사 / 신·연희 건축사사무소 광주 광산구 송정로 18(송정동)
  - 송 건 건축사 / 대호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하서로 333-5 황금빌 101호(양산동)
  - 강찬수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광림 광주 북구 독립로 397(우산동)
- \*부고**
  - 장경민 건축사 / 민 건축사사무소 빙부상 6월7일(일)
  - 나현엽 건축사 / 그린 건축사사무소 빙모상 6월16일(화)
  - 박신남 건축사 / 유림 건축사사무소 부친상 7월2일(목)
  - 이지섭 건축사 / 이지 건축사사무소 부친상 7월5일(일)
  - 양주영 건축사 / 씨에이그룹 건축사사무소 장인건축 모친상 7월6일(월)

### 전남건축사회 동정

- \*변경(소재지)**
  - 문성식 건축사 / AUD 건축사사무소 전남 장흥군·읍 건설리 414-4 (주)케이티 장흥지점 사옥 2층
- \*전입**
  - 황대연 건축사 / (주)디케이 건축사사무소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3, 2층

### 광주·전남·전북 7·8월 지역축제

- ▶ 07. 10 (금) ~ 07. 15 (수)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2015\_전라북도 무주군일원
- ▶ 07. 24 (금) ~ 07. 28 (화) 목포항구축제 2015\_전남 목포시 평화의 섬 삼학도 및 선창 일원
- ▶ 07. 31 (일) ~ 08. 06 (목) 전남진장홍물축제 2015\_전남 장흥군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
- ▶ 08. 01 (금) ~ 08. 09 (일) 강진청자축제 2015\_전남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도요지 일원
- ▶ 08. 13 (목) ~ 08. 16 (일) 무안연꽃축제 2015\_전남 무안군 회산백련지 일원
- ▶ 08. 29 (토) ~ 09. 06 (일) 무주반딧불축제 2015\_전북 무주군 일원 지남공원, 반디랜드

※건축허가관련 양식 기재란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합시다. 건축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 법 / 령 / 정 / 보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알림

[시행 2015.7.7.] [대통령령 제26384호, 2015.7.6., 일부개정]

#### [일부개정]

#### 1.개정이유

○ 특수구조 건축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구 변화나 건설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건축구조 기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21296호, 2015. 1. 6. 공포, 7. 7. 시행)됨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북(正北) 방향 인접대지 건축물의 이격거리 적용 제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2.주요내용

- 가.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제6조의3 신설)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을 받아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 사항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착공신고를 하도록 함.  
나. 정북 방향 인접대지 건축물의 이격거리 적용 제외 대상 확대(제86조제2항제1호)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구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경관법」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을 포함함.  
다. 건축모니터링 운영(제92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건축모니터링을 실시하되, 건축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고 건축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춘 자를 전문가로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알림

[시행 2015.7.6.] [대통령령 제26381호, 2015.7.6., 일부개정]

#### [일부개정]

#### 1.개정이유

○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의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97호, 2015. 1. 6. 공포, 7. 7. 시행)됨에 따라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학교 기숙사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이용의무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주요내용

- 가.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의 면제사유(제16조의2 신설 및 제21조제2항제3호·제4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나.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제52조제1항제5호 신설)  
개발행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일괄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변경내용은 개발행위 변경 허가대상에서 제외함.  
다.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 확대(제56조의2제1항)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이 비시가화지역 중 유도 용도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합리적인 계획의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 면적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보전 용도 지역의 일부를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라.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의 건폐율 완화(제84조제5항제6호 신설)  
중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구역으로서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계해 있는 구역에 있는 공장의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 및 환경오염 우려 등이 없다고 인정되면 건폐율을 8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마. 학교 기숙사의 용적률 완화(제85조제3항)  
대학생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또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에 대해서는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이용의무기간 완화(제124조제2항)  
자기거주용 주택용지, 복지·편익시설의 용도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토지를 거래한 경우의 토지이용의무기간을 3년 및 4년에서 각각 2년으로 완화함.  
사.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의 완화(별표 20 제1호자목)  
1) 계획관리지역 내의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환경법령에 따라 대기, 수질, 소음 및 진동 등과 관련된 오염을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의 입지를 업종에 관계없이 허용함.  
2)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등과 섬유제조시설 중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염색시설은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허용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16면 전면광고: 1,000,000원
- 16면 외전면광고: 700,000원
- 하 단 광 고: 350,000원
- 하 단 1/2 광고: 200,000원
- 구 독 료: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 금 주: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신협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 행 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 행 인: 정명철, 박홍욱, 전병갑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업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전, 국원식, 김남중  
 초대편집인: 박홍근  
 편집인: 이재형  
 부 편집인: 정영환, 백재봉, 양우현  
 편집위원: 박승국  
 편집위원: 이순미, 신영은, 정영범, 박신남, 김필서, 정관성, 강동영, 김미영, 이광영, 유미순, 박중호, 박주현, 이준수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격: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주)디자인포우 T.062)385-9395  
 광고 신청: T.062)521-0025



#### 표지설명

#### 부산감천마을

건축과 문화가 만나는 공간. 낙후된 지역 활성화의 대표적 사례 한 번쯤은 가보시라는 권유를 해본다.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1만원부터
- 후원방식: 신협 131-009-471898(예금주:광주건축사회)
- 김성규 대농산업 1,200,000원
- 광주건축사회 700,000원
- 반석기초이앤씨(주) 350,000원
- 윤춘주 법무법인 서석 100,000원

####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 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매달 25일  
문 의: 광주건축사회(Tel:062-521-0025)  
E-mail: gjkira@empal.com

- 1.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 2.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직책 및 약력을 첨부.
- 3.원고는 야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김정은 독자  
경기도 김포시  
부동산 개발업 종사

개천에서 난 용은 이제 없다.



(내 아이의 꿈을 만화가로 성공하는 것)

3년 전부터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건축문화사랑에 글을 한번 쓰고자 여러 번 시도를 했으나 이제야 한편의 원고를 쓰게 됐다. 독자 광장이라는 부분에 가장 만만한 코너가 무엇인지 심도 있게 고민한 끝에 결론은 삶을 담은 원고라 생각하고 미려한 글꼴(?)로 차근차근 써 내려가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넓은 아량을 기대한다.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해 죽어라 일만 한 끝에 경우 안정적인 자리를 얻게 된지 10년 정도 되어가는 듯하다. 어릴 적부터 공무원 생활을 하신 아버지 밑에 자라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한 청년기를 보내왔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다양한 부류의 친구들을 만나보며 그들이 가고 자란 환경이 얼마나 중요인지 지금에 와서야 새삼 느끼고 있다.

100명 중 100명이 꼭 그런 것이 아니지만 불우한 환경 속에 자라온 친구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 환경을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없었다. 1년 중 몇 번의 동창회 모임에 나가보면 꼭 잘 살았던 친구들과 그나마 중산층에 있었던 친구들만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동창회 모임에서 간간히 다른 친구들의 소식을 듣기는 했는데 그때 그 당시 꼭 어려웠던 친구들은 지금도 어렵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들이었다.

일용직 근로자, 계약직 직원, 잘못된 행동으로 교도소에 있다는 친구 등등 참 안타까웠던 친구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매번 들려왔다.

드라마에서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꿈과 희망을 갖고 노력 끝에 출세했다는 이야기들은 정말 드라마니까 가능한 이야기들이나 세상이 됐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욱 못 사는 각박한 시대의 삶이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우리 아버지가 말한 예전 시대의 개천의 용은 이제 정말 보기가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더더욱 제도적인 기반이 형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지금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내 아이에게 삶에 대한 희망을 주고 싶다. 미래 20년 후의 나의 모습이 이 절망의 시대를 한탄하고 있는 나의 아버지처럼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리 한숨만 내쉬어질 뿐인데... 희망을 노래하고 꿈꾸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개천에서 난 용이 내 아이가 되는 그날을 꿈꿔본다.



문창식 시인/건축사  
우리 건축사사무소

달연시

마음새가 쪼아 놓고간 연시에

가슴자리가 열렸습니다.

그사이 가을달 끼워져

등근태극 달연시가 맞추어졌지요

머리 맡에 똑

과녁을 맞춘

하늘에서 쏜 사위

바람이 웃고

산이 웃고

문풍지 뚫린

안심사에서 하룻밤입니다



황현정 대표  
비에스 ENG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_지그 지글러(작가) 저 이구용 역 큰나무 2006.1.31.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그 지글러 Zig Ziglar



그대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가?

인생이란 단 한 차례의 기회이다. 기회를 잡지 않으면 후회, 비탄으로 끝난다. 성공이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만이다. 그것을 잡지 않으면 후회, 비탄으로 끝난다.



우리인생에 신념의 등불을 밝혀주며, 새로운 성공의 메시지를 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지그 지글러의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를 읽고 공허함과 나의 자신에 대해 되짚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산을 보지 않고서는 산에 오를 수 없으며, 강을 보지 않고서는 강을 건널 수 없다. 산이 깊으면 정상이 높고, 강이 넓으면 수심이 깊다.

언제나 우리는 높은 산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고, 깊은 물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높은 산에 오르는 방법을 알고 있고, 깊은 물을 건너는 방법을 알고 있다. 다만, 깊은 계곡이 싫어 산을 오르려 하지 않는 것이고, 깊은 물이 두려워 강을 건너려 하지 않을 뿐이다. 그러면서도, 높은 산과 깊은 바다를 탄식한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 혹은 강과 바다를 건너기 위해 험난한 계곡과 사나운 물살을 지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그런데 정상을 꿈꾸면서,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기대하면서 어찌 험한 산과 물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그리고 어찌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일까?

나는 이 책을 읽고 많은 반성과, 그리고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앞으로도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더 나은 삶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었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얻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그 지글러는?

가장 유명한 대중연설가 중 한 명이자 '최고의 동기부여가', '자기계발과 성공학의 대가' 로 알려져 있다. 주방기구 세일즈맨으로 사회에 첫 발을 디딘 후 실패와 우여곡절을 경험하면서 최고의 세일즈맨이 되었다.

그는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성공을 꿈꾸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부여가가 되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그 지글러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력한 자기계발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그의 고객 목록에는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과 미국 정부기관, 교회, 학교, 비영리 단체, 전 세계의 크고 작은 수천 개의 기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Zig Ziglar Corporation을 경영하며, 1년에 500만 마일을 이동하고 이틀에 한 번 꼴로 강연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다 2012년 11월 사망했다.

공사의 첫 단추, 기초공사 반석기초이앤씨에서 끼우세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곳이 없습니다  
공사의 첫 단추인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건축물의 결과도 부실해집니다  
공사의 첫 단추를 반석기초이앤씨에서 끼우는  
시공사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빠른시공, 무소음, 무진동, 비배토공법  
**ROTARY PILE**

신축, 증축, 기초보강  
**MICRO PILE**

고밀도 지반보강  
**GeoCon**

건설기술 640호  
신기술 융합이 가시성공법  
**PS-S**  
[피에스텍 기술 제휴]